MARKET INSIGHT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12.9

나스닥,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 성공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최근 상승을 뒤로하고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쉬어가며 소폭 상승 마감. 특히 오미크론 변종이 건강과 경제적 관점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 가운데 FOMC에서 연준이 정책 변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관망세 전환 요인으로 추정. 여행, 레저, 항공 업종과 메타버스 산업 성장 기대로 관련 기업들이 상승 주도한 반면, 필수 소비재, 반도체 및 금융주가 부진(다우 +0.10%, 나스닥 +0.64%, S&P500 +0.31%, 러셀2000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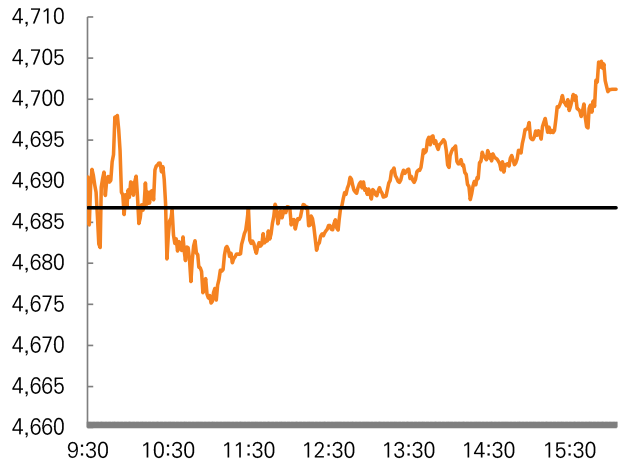
특이 종목

- 애플(+2.28%)은 메타버스 진입을 위한 VR 헤드셋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소식과 이미 2세대 VR 헤드셋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애플로 인해 메타버스 이슈가 부각되자 관련 산업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에 힘입어 메타 플랫폼(+2.40%), 로블록스(+7.58%)등 관련주가 강세. 카니발(+5.51%) 등 크루즈, 델타항공(+2.21%) 등 항공, 디즈니(+1.68%) 등 레저 업종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 테슬라(+1.64%)는 도이체 방크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발전으로 더 높은 기술력과 구독 수익 창출을 이유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자 상승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28%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3.1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상승. KOSPI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져 하락하기도 했으나, 애플에서 시작된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 전환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오미크론 이슈가 완화되며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하고, 애플이 촉발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의 강세는 관련 종목 위주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물론 오늘은 선물옵션만기일임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외국인 선물 수급에 따라 변화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01.80	+0.34	상해종합	3,637.57	+1.18
KOSDAQ	1,006.04	+0.94	홍콩항셍	23,996.87	+0.06
DOW	35,754.75	+0.10	베트남	1,452.87	+0.42
NASDAQ	15,786.99	+0.64	유로스톡스 50	4,233.09	-1.01
S&P 500	4,701.21	+0.31	영국	7,337.05	-0.04
캐나다	21,077.35	-0.40	독일	15,687.09	-0.80
일본	28,860.62	+1.42	프랑스	7,014.57	-0.7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애플과 메타버스, 그리고 개별 종목 변화 요인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WHO 사무총장이 오미크론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고 주장. 이러한 발언은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결국 오미크론이 건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함. 물론 화이자(-0.62%)가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미크론에 대해 효력이 현격히 감소하지만, 추가접종을 할 경우 크게 개선된다고 발표한 점도 오미크론 우려를 완화시키며 여행, 레저, 항공, 호텔, 리조트 업종의 강세를 불러옴

한편, 미 하원이 부채한도 협상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통과해 민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도 차익 실현 욕구를 완화. 이 법안이 상원에 상정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미국 부채한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요인으로 제한적인 차익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애플(+2.28%)의 상승을 보인 점도 특징. 애플은 아이폰 생산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재고 부족 등으로 연말 쇼핑 시즌 매출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었으나 상승. 특히 지난해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과거에는 폭스콘 등 많은 부품 업체들이 24시간 생산을 했으나, 지난해에는 공장이 멈췄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 일부 언론은 아이폰 13 제품군 생산이 이로 인해 20%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그러나 최근 애플의 상승 요인은 기존 제품 이슈가 아니라 증강현실 분야 및 서비스 부문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 기인한 것

오늘도 내년 4분기 1세대 AR 출시 전 이미 2세대 증강 현실 헤드셋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밍치 궈는 이를 토대로 2023년에는 250~350만개 2024년에는 800~1,000만개의 헤드셋을 출하할 것이라고 전망. 더 나아가 메타버스가 올해 가장 큰 기술적 화두가 된 반면,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헤드셋은 더디게 개발되고 있으나, 애플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입. 이 같은 소식에 애플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음. 결국 VR이라는 매출 부문의 다변화가 예상되며 애플 상승을 견인

번스타인 등 주요 투자 회사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XR 장치가 애플 및 여타 업체들의 거대한 매출을 견인 할 것으로 전망. XR시장은 2022년에는 1%의 시장 침투율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1억 4,700만대, 2040년에는 9억 6,1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초기 XR 하드웨어는 애플 매출의 4%에 불과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메타버스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며, 기술주들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토대로 생각보다 관련 산업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 오늘도 번스타인을 비롯한 많은 투자회사들이 메타버스 관련 보고서를 내놓자 메타플랫폼(+2.40%), 로블록스(+7.58%) 등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나스닥 상승을 견인한 점이 전반적인 특징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메타플랫폼 상승 Vs. NXP 세미 부진

애플(+2.28%)은 메타버스 진입을 위한 VR 헤드셋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소식과 이미 2세대 VR 헤드셋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애플로 인해 메타버스 이슈가 부각되자 관련 산업이 예상보다 더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보고서에 힘입어 메타 플랫폼(+2.40%), 로블록스(+7.58%)등 관련주가 강세. 부킹닷컴(+2.77%), 익스피디아(+3.49%) 등 여행, 카니발(+5.51%), 로얄크루즈(+5.21%) 등 크루즈 업종, 델타항공(+2.21%), 유나이티드 항공(+4.24%) 등 항공, 라스베가스 샌즈(+4.42%) 등 호텔 리조트 업종, 디즈니(+1.68%) 등 레저 업종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 로쿠(+18.23%)는 유튜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

테슬라(+1.64%)는 도이체 방크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발전으로 더 높은 기술력과 구독 수익 창출을 이유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자 상승. 반면, 미국 중서부 및 남부 지역의 편의점 체인점인 케이시스(-6.89%)가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으나 수익이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 이는 영업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 여파로 월마트(-1.01%), 코스트코(-2.20%), 타겟(-2.45%) 등 여타 소매 유통업종이 영업비용 증가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NXP세미(-4.52%)는 UBS가 자동차 반도체 부문의 성장을 하회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도, 목표주가 170달러로 커버리지를 시작하자 하락. 온세미컨덕터(-1.85%), 인피니온(-3.72%) 등도 동반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19	대형 가치주 ETF (IVE)	-0.01
에너지섹터 ETF (OIH)	+1.55	중형 가치주 ETF (IWS)	+0.44
소매업체 ETF (XLY)	+0.21	소형 가치주 ETF (IWN)	+0.52
온라인소매 ETF (EBIZ)	+0.94	대형 성장주 ETF (VUG)	+0.76
금융섹터 ETF (XLF)	-0.56	중형 성장주 ETF (IWP)	+1.28
기술섹터 ETF (XLK)	+0.44	소형 성장주 ETF (IWO)	+0.8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40	배당주 ETF (DVY)	-0.16
클라우드 ETF (CLOU)	+1.58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09
미국 리츠 ETF (VNQ)	+0.68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41
주택건설업체 ETF (XHB)	+0.53	미국 국채 ETF (IEF)	-0.32
바이오섹터 ETF (IBB)	+1.13	하이일드 ETF (JNK)	+0.02
헬스케어 ETF (XLV)	+0.73	물가연동채 ETF (TIP)	-0.17
곡물 ETF (DBA)	+0.0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67
반도체 ETF (SMH)	-0.43	모멘텀 ETF (MTUM)	+0.0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커뮤니케이션	267.86	+0.75	+4.74	-3.60
헬스케어	1,555.80	+0.74	+3.20	+0.29
부동산	309.39	+0.47	+5.97	+2.35
IT	3,039.91	+0.45	+4.12	+3.54
소재	552.30	+0.40	+5.22	-1.49
경기소비재	1,634.45	+0.28	+3.07	+0.91
산업재	887.79	+0.27	+5.89	-1.94
에너지	431.28	+0.01	+6.01	-3.66
유틸리티	348.03	-0.11	+4.47	+3.03
필수소비재	755.63	-0.38	+3.69	+0.07
금융	648.61	-0.46	+4.04	-2.4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3,000p 안착 기대 Vs. 변동성 확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28%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3.1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상승. KOSPI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강세에 힘입어 한 때 1.5% 가까이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이 현물을 순매도 하며 한 때 보합권까지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그렇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수에 의한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자 재차 반등해 KOSPI 기준 3,000pt를 상회하며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져 하락하기도 했으나, 애플에서 시작된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 전환.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오미크론 이슈가 완화되며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하고, 애플이 촉발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의 강세는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 위주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편, 중국의 물가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상승으로 지난달 발표(yoy +1.5%)를 상회하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1%상승으로 지난달 발표(yoy +13.5%)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전월보다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는 중국 발 인플레 공포를 완화할 수 있어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물론 오늘은 선물옵션만기일임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배당 연계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제한될 수 있는데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중요.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전일에 이어 외국인 선물 수급에 따라 변화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지속

미국 10월 채용공고는 지난달 발표(1,060.2만 건)나 예상(1040만 건)을 상회한 1,103만 3천 건을 기록. 고용률은 4.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자발적 퇴직은 전월 대비 20만 5천 건 감소한 420만 건을 기록해 자발적 퇴직비율은 2.8%를 기록

상품 및 FX시장 동향

달러,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약세

국제유가는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170만 배럴 감소)보다 적은 24.1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상승. 달러 약세 및 오미크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자 소비 증가 기대 심리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헤드라인 숫자는 하락 요인이었으나, 시장 참여자들은 오미크론 이슈 및 미-이란 핵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달러화는 FOMC를 기다리며 그동안 강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약세. 파운드화는 존스 총리가 영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플랜 B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하자 달러 대비 약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로 달러 대비 약세. 호주 중앙은행은 오미크론이 호주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호주달러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캐나다 달러 또한 금리를 동결했으나, 내년 중반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2%대 강세를 보이는 등 여타 신흥국 환율도 강세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개선과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다만, FOMC를 앞두고 최근 변동성에 대한 피로감에 전반적인 관망세로 전환하며 변화폭은 제한.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6배)을 하회한 2.43배를 기록했으나, 간접입찰은 12개월 평균(65.3%)을 상회한 68.8%를 기록해 영향은 제한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에 기대 소폭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곡물은 긍정적인 곡물 수출 데이터를 토대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그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전환. 더불어 미 법무부가 급등하고 있는 비료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료 가격 하락 기대 심리가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 더 많은 비료를 이용해 곡물 수확량 증가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추정. 다만, 장 마감 앞두고 달러 약세에 기대 일부 품목은 상승 전환하며 결국 혼조세로 마감.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34%, 철근은 1.29%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36	+0.43	+10.36	Dollar Index	95.906	-0.48	-0.13
브렌트유	75.82	+0.50	+10.09	EUR/USD	1.1347	+0.71	+0.24
천연가스	3.82	+2.91	-10.38	USD/JPY	113.71	+0.10	+0.82
금	1,785.50	+0.04	+0.07	GBP/USD	1.3216	-0.21	-0.47
은	22.43	-0.40	+0.42	USD/CHF	0.9203	-0.55	+0.03
알루미늄	2,627.00	-0.06	-1.41	AUD/USD	0.7173	+0.76	+0.96
전기동	9,652.50	+0.60	+2.21	USD/CAD	1.2654	+0.12	-1.28
아연	3,310.00	+2.59	+3.36	RUB/USD	0.0136	+0.82	+0.59
옥수수	587.25	+0.21	+2.76	USD/BRL	5.5301	-1.42	-2.65
밀	794.50	-1.73	+0.51	USD/CNH	6.3460	-0.28	-0.41
대두	1,261.00	+0.86	+2.67	USD/KRW	1,175.90	-0.31	-0.28
커피	244.20	+0.37	+4.69	USD/KRW NDF1M	1,173.10	-0.37	-0.3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26	+5.31	+12.27	스페인	0.412	+8.10	-1.30
한국	2.180	-6.00	-0.20	포르투칼	0.344	+8.60	-0.90
일본	0.050	-0.60	-1.50	그리스	1.367	+12.70	+17.10
독일	-0.313	+6.20	+3.00	이탈리아	1.025	+10.50	+1.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